(☐ 차기회장 / ☑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성 명	구 상 모	
소 속	광운대학교 전자재료공학과	
직 위	정교수	

존경하는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회원 및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기 부회장 후보로 인사드리는 구상모입니다.

우리 학회는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37년 동안 전기전자재료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 학회로서 대한민국 산업과 학문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저는 25년 전, 1999년 유학 시절 논문 발표를 계기로 처음 학회에 참여하였고, 이후 미국 연구소에서 활동하다가 2006년 대학에 부임한 후, 지도 학생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학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편집이사로서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책자를 준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동안 편집이사, 재무이사, 국제이사 등 여러 직책을 맡아 학회 발전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상과 공로상 등을 수상하며, 학회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더 큰 기여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부회장으로 선출된다면,
내년에는 차기 회장님을 보필하는 위치에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신훈규 차기 회장님을 도와 학회의 미래를 밝히고, 선배 회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후배 회원님들의 에너지,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긍정적인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열릴 ICSCRM 2025는 우리나라 전기전자재료 학문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ICSCRM 2025가 한국에서, 우리 전기전자재료학회 주최로 처음 개최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만 순환 개최되던 이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ICSCRM에 참석해왔으며, 최근 3년 동안 TPC 위원회와 ICSCRM 커미티에서 활동하며 유치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SiC 연구회 설립 멤버로서, 연구회가 우리 학회의 'SiC 반도체 재료와 소자' 전문 연구회로 출범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신훈규 차기 회장님과 함께 WBG 심포지엄을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개최하며 SiC 반도체 분야의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전문 연구회는 SiC 분야에서 최고의 연구회로 인정받고 있으며, WBG 심포지엄도 고에너지 반도체 재료 분야에서 최고의 심포지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학회 전문 연구회의 역량을 보여주는 동시에, 회원님들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학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학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국문 및 영문 학술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논문이 투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 그리고 신진 박사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ICAE의 지속적인 성장은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도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학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 또한 학회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상모 배상